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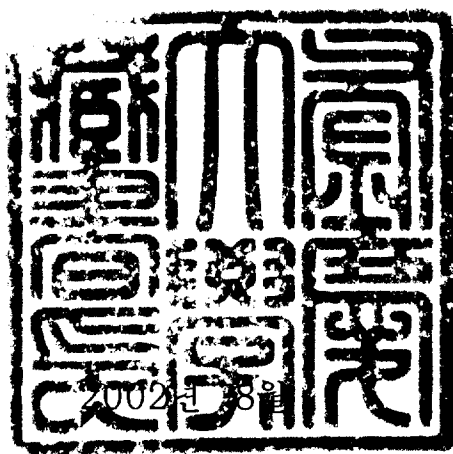
문학석사학위논문

日本語의 受動文에 관한 考察

— 韓國語와의 對應 關係를 中心으로 —

지도교수 손 동 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부경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전 미 경

전미경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2년 6월 29일

주 심 최 건 식 (인)

위 원 손 동 주 (인)

위 원 장 상 언 (인)

目 次

I. 서론	1
1. 들어가기	1
2.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3
2.1. 선행 연구	3
2.1.1 일본어의 수동문에 대한 선행 연구	3
2.1.2 한국어의 수동문에 대한 선행 연구	7
2.1.3 대조적 관점에서 보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선행 연구 및 문제점	8
2.2 연구 방법	11
3. 연구 목적	11
II. 본 론	13
1. 수동의 정의	13
1.1 일본어에서의 수동의 정의	13
1.2 한국어에서의 수동의 정의	16
2. 수동의 분류	16
2.1 한국어의 受動形	16
2.2 일본어의 受動形	20
2.3 구문으로 본 한국어의 受動文	21
2.4 구문으로 본 일본어의 受動文	22
3. 양국어의 대응관계에서 나타나는 수동문의 특징	23
3.1 양국어 사이의 대응 관계	23
3.1.1. 일본어의 수동문이 한국어의 수동문에 대응하는 경우	25

3.1.1.1	한국어의 접미사에 대응하는 경우	25
3.1.1.2	한국어의 되다 형에 대응하는 경우	29
3.1.1.3	한국어의 지다 형에 대응하는 경우	37
3.1.1.4	한국어의 맞다 형에 대응하는 경우	40
3.1.2	일본어의 수동문이 한국어의 능동문에 대응하는 경우	42
3.2	일본어에서의 수동문의 내포 의미	48
3.2.1	일본어에서의 수동문의 내포 의미	49
3.2.1.1	피해 의식	49
3.2.1.2	연민의 정	51
3.2.1.3	상호간의 방향성	51
3.2.1.4	생략된 주어	52
3.2.2	한국어와의 대응 관계로 보는 내포 의미	53
3.2.2.1	피해의식	53
3.2.2.2	연민의 정	55
3.2.2.3	상호간의 방향성	56
3.2.2.4	생략된 주어	57
Ⅲ.	결 론	59
	참고 문헌	62
	인용 작품	64

A Study of the Passive Construction in Japanese
- A Comparative Analysis with Korean-

Mi-Gyeong Jeon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re are a lot of similariti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These similarities could be of benefit to Korean learners, whereas they could be an obstruction to learning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Japanese if the learners heavily rely on them.

This study examined the correspondent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en the Japanese passive construction is represented in Korean and the main reasons why the Japanese passive construction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Korean passive constru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Japanese passive construction is represented as a passive construction, active construction, or verbs of giving and receiving in Korean.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the subject in the active construction is animate. Japanese is represented as a passive construction which focuses on the subject affected by the agent, whereas Korean is represented with an active construction which focuses on the agent. When the subject is inanimate, Japanese is represented by a passive construction which is focused on action, on the other hand, Korean is represented by an active construction whose contents are the normal situation or phenomena.

This study also classified the Japanese construction into four categories-injured consciousness, compassion, reciprocal direction, and omitted subject by its meaning and investigated the correspondent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passive construction. When the Japanese passive construction implies injured consciousness, Korean is represented with an active construction. The reason seems to be dependent upon the meaning between the active construction which is focused on the agent and the active construction which is focused on the subject affected by the agent.

I. 서 론

1. 들어가기

한국어와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문법이 비슷한 점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인 학습자가 일본어 습득 시 유리한 점도 많지만, 반대로 일본어만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구사하지 못하는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모국어의 간섭은 특히 한국인 학습자가 일본어 특유의 受動文¹⁾ 表現을 도입 할 때, 한국어 문법에 맞춘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 올림픽 후,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되었다.

(1) 'オリンピック後, 韓国は經濟的に?発展された。(→発展した)

(寺村1990)

(2) 현실과 이상은 모순된다.

(2) '現実と理想とは?矛盾される。

(→矛盾する)

위의 예문은 일본어의 「漢語+する」 동사와 한국어의 「한어+하다」 동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용으로, 「되다」가 「される」로 잘못 표현한 전형적인 오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의 수동 표현을 그대로 일본어의 수동 표현으로 바꾼 경우이다. 즉, 일본어의 能動이 한국어의 수동에 대응

1)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에서 피동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수동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해서 나타나고 있다.

(3) いそがしい時, ?彼が来ると, まったく困る。(金勝漢 1985)

(→彼に来られると)

(3) ' 바쁠 때, 그가 오면 , 정말 곤란하다.

(4) 夏, 一番多く?飲む飲み物はビールだ。(金勝漢 1985)

(→飲まれる)

(4) ' 여름에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수는 맥주이다.

위의 예문은 일본어의 間接受動的 오용으로, 부자연스런 일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예이다. 즉, 일본어의 수동이 한국어의 능동에 대응해서 나타나고 있다.

(5) 엄마한테 칭찬 받았다.

(5) ' 母から?称讚受けた/もらった。(→ほめられた)

(6) 테스트는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되었다.

(6) ' テストは次の月曜日に?延期なった/になった。(→延期された)

위의 예문은 한국어의 '받다(もらう), 되다(なる)' 의 동사와 '칭찬, 연기' 라는 명사에서 발생하는 어휘의 혼동으로 나타나는 오용이다.

(7) 木村さんはクラスの皆に?いじめさせられます。(→いじめられている)

(7) ' 클래스의 모두가 木村을 괴롭힌다.

한국어의 「이, 히, 리, 기」의 접미사가 수동과 사역에 모두 다 쓰인다는 혼동에서 오는 예로, 일본어의 사역을 나타내는 「させる」가 쓰여졌다고 본다. 또한 동작 주체를 주어로 할 것인가 화제의 인물을 주어로 할 것인가에 의한 표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오용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법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으나,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법적인 차이에서 오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용례를 기초로 하여 양국어에서 나타나는 수동 표현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2.1. 선행 연구

2.1.1 일본어의 수동문에 대한 선행 연구

지금까지 수동문에 대해서는 일본어는 물론이거니와 한국어에서도 수 없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과제도 아주 다양하며 분류기준도 가지각색이다. 먼저 본 논문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 분류되어 있는 수동문에 대한 기본적인 분류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三上(1963)는 먼저 동사를 所動詞와 能動詞로 분류한 후²⁾에, 能動詞는 ‘はた迷惑の受身’와 ‘まともな受身’의 두 종류로 분류하였다.

鈴木(1972 : 279~282)는 다음의 예를 들어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直接対象のうけみ

・ 二郎がさち子をなくった。→ さち子は二郎になぐられた。

2) どちらの受身にもならない動詞(アル、売れる、似合う・・・)を所動詞、どちらかの受身になるものを「能動詞」とする。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1 : 217>

・大関が横綱をなげとばした。→ 横綱が大関になげとばされた。

② あい手のうけみ

・のら犬が太郎にかみついた。→ 太郎がのら犬にかみつかれた。

・太郎は花子に計算を教えた。→ 花子は太郎に計算を教えられた。

③ もちぬしのうけみ

・スリが(太郎の)財布をすった。→ 太郎はスリに財布をすられた。

・先生は花子の絵をほめた。→ 花子は先生に絵をほめられた。

④ 第三者のうけみ

・雨が降った。→ ぼくは雨に降られた。

・隣のむすこが一晩中レコードをかけた。→ 私は隣のむすこに一晩中レコードをかけられた。

井上(1979)는 변형 문법의 입장에서 어떤 수동문도 그 基底 구조로서 능동문을 가진다는 주장³⁾을 하고, 수동문을 單純受動文과 間接受動文으로 분류하여, 前者를 대응하는 능동문에서의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로 되는 文이라 하고, 後者를 능동문의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와 대응하는 명사구를 가지지 않는 文이라고 했다.

① a. 次郎が太郎から野球に誘われた。

b. 太郎が次郎を野球に誘った。

② 太郎は、赤ん坊に泣かれた。

③ 太郎は次郎に成功された。

①의 b의 능동문에서 목적어인 太郎가, a의 수동문에서는 次郎라는 주어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文을 單純受動文으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②의 경우는 「赤ん坊が泣いた。」, ③의 경우는 「次郎が成功した。」라는 능동문으로 대응할 때, 능동문의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로 대응하는 명사구를

3) 変形文法と日本語, 井上和子 1979 大修館 p75~81

가지지 않는다. 또, 鈴木의 ‘もちぬしのうけみ’에 해당하는 수동문도 間接受動文에 분류하고 있다.

森田(1981)는 일본어의 수동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고 「第1種の受身」와 「第2種の受身」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각각 5가지 종류의 형식으로 나누어 10종류⁴⁾로 분류하고 있다.

또, 益岡(1982)는 「受動文を明らかにするには、受動文がいかなる意味を付加するのか、を解明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そして、そのためには、受動化を動機づけているものは何か、すなわち、何が受動化の機能であるのか、を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라고 말하고, 수동문을 非주어명사구와 主語에의 昇格에 動機를 부여하는 ‘昇格수동문’과 主語名詞句의 主語에서 나온 ‘降格수동문’으로 나누고 있다.

久野(1983)는 구문론적인 관점과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분류를 하고 있다.

- ① この子は皆にかわいがられている。
- ② 田中は、山田先生に認められていた。
- ③ 山田は、花子に、アパートに来られた。
- ④ 田中老人は、娘に、その青年と結婚された。

4) 第1種類の受身

- ① A가 自V → (Bは)Aに自Vれる
- ② A가 C를他V → (Bは)AにC를他Vれる
- ③ A가B의C를他V → BはAにC를他Vれる
- ④ A가BにC를他V → BはAにC를他Vれる
- ⑤ A가Bに 自V → BはAに自Vれる

第2種類の受身

- ⑥ A가C를他V → CはAに他Vれる
- ⑦ A가C를他Vている → CはAに他Vている
- ⑧ A가C를Bに他V → CはAにBに他Vれる
- ⑨ (A가)C를他V → C가他Vれる
- ⑩ (A가)C를Bに他V → C가Bに他Vれる

위의 예문에서 ① ②는 구문론적으로는 ‘직접수동문’, ③ ④는 ‘간접수동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 의미론적으로는 ① ②를 ‘中立受動文’, ③ ④를 ‘被害受動文’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寺村(1983)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直接受身

- ・直孝ハ祖母ニ育テラレタ
- ・アーサー王子が予言者マーリンに助けられた。

② 間接受身

- ・直孝ハ五歳ノキ父母ニ死ナレタ
- ・アーサー王子は、三歳の誕生日に両親を隣国のラビック王に殺され、危ないところを予言者マーリンに助けられました。

지금까지의 일본어의 수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학자	三上 (1963)	鈴木 (1972)	井上 (1979)	森田 (1981)	久野 (1983)	益岡 (1982)	寺村 (1983)
분류	はた迷惑の受身	① 第三者のうけみ ② もちぬしのうけみ ③ あい手のうけみ	間接受動文	第一種の受身	被害受身	昇格受動文	間接受身
	まともな受身	直接対象のうけみ	単純受動文	第二種の受身	中立受身	降格受動文	直接受身

2.1.2 한국어의 수동문에 대한 선행연구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역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부분이 형태론적인 측면과 의미론적인 측면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 또 한국어의 경우는 수동을 형성하는 접사 「이, 히, 리, 기」가 사역을 형성하는 접사에도 속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역과의 대조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일찍이 최현배(1929)는 『우리말본』에서 스스로 제 힘으로 그 움직임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힘을 입어서, 그 움직임을 하는 것을 수동이라고 정의하고, “히”와 “기”를 더하는 형태와 “하다” 동사에 입음의 뜻을 나타내는 “되다” “받다” “당하다”를 “하다” 대신에 바꿔 넣어서 만드는 수동형, 그리고 가장 두루 통하는 방법으로 “어, 아, 여”에 “지다”를 더하는 3가지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양동휘(1976)는 국어의 수동과 사동을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인 부분까지 비교 분석하면서 그 유사성을 밝혀내, 피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성광수(1976)는 한국어의 수동에는 ‘직접적인 수동법’과 ‘간접적인 수동법’이 있다고 하고, 이는 동사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어의 피동에는 단수동 외에 중수동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직접수동 + 간접수동」의 중수동은 동작과 상태의 종합적 피동으로 강조피동이라고 했다. 그리고 직접 수동화는 접미사 「이」에 의한 피동화와 「하다」류의 동사문에 「하다」대신에 「되다」가 대체되는 방법, 그리고 동작성을 강조하기 위해 「당하다」 「받다」 「듣다」 등의 차용으로 「하다」에 대치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홍빈(1980)은 『피동성과 피동구문』에서 수동 영역의 제약, 형식 요건의 제약, 단회 수동의 제약, 능동 대응문의 제약 등의 수동성 성립 제약

조건을 4가지로 설정⁵⁾하고 이러한 제약을 벗어나는 예들의 수동성이 다른 근거에서도 제거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했으며, 또 수동형의 논의가 다루어져야 할 구문은 동사의 어간에 「이, 히, 리, 기」와 같은 접미사가 연결되어 형성되는 전형적인 수동 구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김차균(1980)은 사역과 수동을 관련지어 설명하면서, 수동의 의미를 “동사의 동작성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과정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고 표현하고 있다.

2.1.3 대조적인 관점에서 보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선행연구 및 문제점

한일어 대조에 대한 연구를 「한어+する」 「한어+하다」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일본어의 「する 動詞」와 한국어의 「하다 動詞」의 연구로는 生越(1982)의 논문이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여기에는 많은 모순점들이 나타난다.

“日本語における能動形と受動形の使い分けが、そのまま朝鮮語に適用されるわけではない。これは一般の動詞だけではなく、生産的な形態である漢語動詞においても見られる傾向である。

例えば次のような場合がある。

5) 첫째, 수동영역 제약이란, 피동문제는 적어도 한 문장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 둘째, 형식요건 제약이란 피동의 문제는 어떤 통사적인 微標와 더불어 논의 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의 단회수동 제약이란, 동일 문장에 관한 한 피동화는 일회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며, 넷째 능동대응문 제약이란 피동구문과 그 능동대응문 혹은 능동문과 그 피동대응문과의 관계라는 것이다.

(8) J: 彼が腸チフスに感染した。

K: 그가 장티푸스에 감염(感染)되었다.”

위의 경우 「する」 동사는 「하다」의 능동에 일치하지 않고, 한국어의 수동 형태인 「되다」로 나타나고 있다. 즉, 生越는, 일본어의 경우는 「능동=스ル형」과 「수동=サレル형」으로, 한국어의 경우는 「능동=하다형」, 「수동=되다형」으로 분류하고 대응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日本語)		(韓国語)
能動形		能動形
…スル	-----	…하다
受動形	-----	受動形
…サレル	-----	…되다

그러나, 다음의 예와 같이, 일본어의 「される」가 한국어의 「하다」 「되다」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9) 經濟は政治に影響される。(金勝漢)⁶⁾

(9)' 경제는 정치에 ?영향 되다 /영향 받다

(10) ミョンジャの欠点を先生によって指摘された。(李文子 1979)

(10)' 명자의 결점을 지적 받았다. /지적 당했다.

6) 再 引用

(11) . . . 威圧されていた。(名 p68)

(11)' . . . 위압 받았다 / 위압당했다.

즉, 가장 기본적으로 「받다」 「당하다」 형과 「맞다」 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고 있다. 이때 한국어의 경우는 의미적으로 선행하는 漢語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보여지기도 한다.

그리고, 晋 榮和(1985)가 말했듯이

(12) 実はこれは非常に矛盾した言い方なのだ。

(12)'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말투인 것이다.

와 같이, 「되다 동사」로만 나타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거론되고 있지 않았다. 즉, 「矛盾する」와 같이 「한자아+되다」로만 나타나는 동사에 대해서는 거론이 되지 않았다.

또, 다음과 같이 「する,される」형이 함께 취할 수 있는 동사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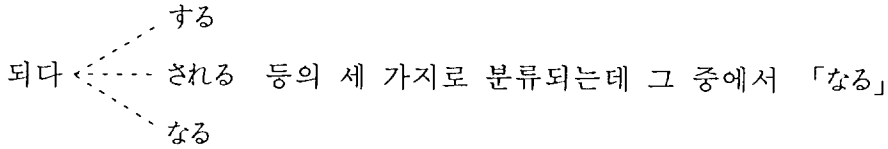
(13) 人類の文化は . . . 石の文化を柱に展開した。

(13)' 인류의 문화는 . . . 돌 문화를 주축으로 전개됐다.

(14) 戦況はいよいよ連合軍に . . . 有利に展開されている。

(14)' 전황은 더디어 연합군에게 . . .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또 하나는 한국어에서 「되다」로 표현되는 일본어의 경우를 보면



가 되는 형에 대해서도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일본어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대역 본이나 한국인의 번역본을 통해, 용례를 조사하여 일본어의 수동문이 한국어에서도 수동문으로 대응하는가, 아니면 능동문으로 대응하는가 등, 각각의 대응 관계를 알아본 후, 대응된 한국어의 수동문이 일본어의 수동문과는 어떤 공통점이 있으며, 또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조사한다.

그리고 분류된 문장 속에서 일본어와 한국어의 언어생활을 함께 관찰하여 양국의 수동문이 각각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차이점은 있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을 사용한다.

3. 연구 목적

일본어에서 수동에 대한 표현을 연구 할 때에는 형태론적인 측면, 구문론적인 측면, 그리고 의미론적인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측면 등을 고려하고 특히, 그 중 의미론적인 측면에 중심을 둔 수동 표현을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어의 수동 표현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표현 방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佐久間와 森田良行(1990 : 136)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⁷⁾

佐久間(1951)⁸⁾는 影響の波及といふ關係を表はす必要がないなら「水が(私に)かったら…」といふよやうに、自動詞「かかる」だけを用いてすむのですがそれは程度「子どもが泣く」や「雨が」と表現するのと同様で、その動作・事象が自分に対して持つ生活感情的効果、その関心を表現するところにこそ、「受身」の形の意義が認められるのだといふべきでせう。

그리고 森田는 「『購買欲をそそられる／食欲をそそられる／招かれざる客…』等、受け手で表わす言い回しが多くしかもこちらの好むと好まざるとに関わらず、他者の働き掛けによって自然にまたは本能的にそのような状態になる発送を尊重する。」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일본인이 수동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와 그 대응 관계로 나타나는 한국어에서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첫째 일본어의 수동 표현과 한국어에서의 그 대응 관계를 조사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힌다. 이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구문론적으로 아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수동문에서 대응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 각각의 특징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대응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어의 수동 표현과 한국어의 수동 표현에서 각각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명확히 하여 한국인 학습자가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7) 森田良行(1990) 日本語学と日本語教育、凡人社 p.136

8) 佐久間(1951) 現代日本語の表現と語法、厚生閣

II. 본 론

1. 수동의 정의

1.1 일본어에서의 수동의 정의

일본어에서 수동이란 여러 학자들이 많은 이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규정하기란 어렵다.

寺村(1982)의 경우 수동태의 의미를 다음과 규정하고 있다.

文法的な態の一つとして、まず受動態(いわゆる受身)を取り上げる。受身というのは要するに、動作・作用が、他の何ものかに働きかける場合に、動作主、つまり動きの発するところを主役とするのでなく、動きを受けるもの、動きの向う先を主役として事態を描く表現であるが、それが文法的に受動態と設定されるためには、(それぞれの言語で)一定の形態的、統語的、意味的特徴を具え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이처럼 수동에 관한 정의를 내리려면 형태적인 측면, 구문론적인 측면과 의미적인 측면에서 각각 모든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즉, 일본어의 수동태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あるものが他から何らかの作用や影響を受けることを表わす」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다음의 예문들도 수동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⁹⁾

(15) 私は友だちの建築しにこの家を建ててもらいました。

(16) われわれは今度の円高で大きな損害をこうむった。

(17) 品物が約束の期限におさまってよかった。

9) 国立国語研究所, 日本語の文法(上), 大蔵省印刷局

위의 예로 보면 「建ててもらいました」와 「こうむった」, 「おさまる」 등은 의미적인 측면으로는 충분히 수동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建ててもらおう」는授受表現의 한 종류이며, 「こうむる」라는 동사는 단어 자체에 수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おさまる」는 자동사로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위의 (15)~(17)의 예는 구문론적인 측면과 일본어 수동문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수동의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 형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レル, ラレル」라는 조동사가 연결된 것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아래의 (18)~(20)의 예문은 모두 수동문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의미적인 측면과 구문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결코 수동문으로 보기에 어려운 것들이다.

(18) このあたりでは三階以上の建物は建てられないことになっています。

(19) この宝石が一番よく売れた。

(20) あなたは最近家を建てられたんですってね。

그래서 (18)와 (19)는 수동과 함께 보이스¹⁰⁾의 카테고리 중의 하나이기 는 하지만, (18)의 「建てられる」는 ‘가능’의 뜻을 지니고 있다. 또, (19)의 「売れる」는 ‘자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20)의 「建てられる」는 ‘존경’의 의미를 각각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구문론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일본어의 수동이란 형식은 술

10) 「補語の格と相関関係にある述語の形態の体系」と規定する。この場合問題になる述語は動詞であるが、格の移動と対応する動詞の形の中に、予見可能的に出沒する形態素が抽出できるとき、それは「文法の態」の一つの下位類と認めることになるが、予見不可能な、つまり辞書に個別的に記述することが必要なような形態的対応であれば、それは「語彙的な態」の形ということになる。(寺村(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p206)

어 동사의 영향을 받는 주체를 X로 보고 동사의 동작 주체를 Y로 볼 때, 「XがYに～される」라는 수동 구문이 「YがXを～する」라는 능동 구문과 대응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용례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21) 昨晚はとなりのアパートの赤ん坊に夜どおし泣かれて睡眠不足になってしまった。

위 (21)의 예는 일반적으로 수동문으로 인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수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이 「YがXを～する」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 『日本語の文法(上)』 11)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泣く』や『先立つ』のように、ふつう自動詞のような動詞が受身の形をしていることであろう。当然のことながら、これらの文を形だけ‘能動’の形にすると、『赤ん坊が私を泣く』というように機械的に変えると変な文ができてくるというのはこのような自動詞文だけに限らない。この種の受身構文については色々な説明がなされてきたが、ここでは、その中に『Xが・・・された』という大きい枠をもち、その『・・・』の部分に「赤ん坊が泣く」のような文が包み込ま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考える。」

따라서 수동의 정의를 내리고자 할 때에는 형태적인 측면과 구문적인 측면, 또 의미적인 측면이 다 함께 부합이 되어야 수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11) 国立国語研究所、日本語の文法(上)、大藏省印刷局

1.2 한국어에서의 수동의 정의

한국어에서도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態의 한가지 개념으로 受動이라는 용어보다는 被動이라는 문법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다.

임홍빈(1991)의 국문법론에서는 한국어의 수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능동태와 수동태는 똑같은 일을 말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수동은 능동의 주어가 불분명하거나 쉽게 기술될 수 없을 때, 능동 주어를 특별히 내세우려 하지 않을 때, 피동 주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두 문장의 연결을 쉽게 하려고 할 때에 선택된다고 했다.

2. 수동의 분류

2.1 한국어의 受動形

한국어의 수동형은 학자마다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형태가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동접사형, 되다형, 지다형, 맞다형의 4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2.1.1 접사形

접사形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수동을 만드는 접사인 「이¹²⁾, 히¹³⁾, 기¹⁴⁾, 리¹⁵⁾」 등을 첨가한다. 그러나 피동접사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는 동사

12) ① 형용사나 자동사의 어간에 붙어 그것들을 타동사로 만드는 보조 어간. ② 타동사의 어간에 붙어 그것을 피동사나 사역 동사로 만드는 보조 어간. 「쓰이다」

13) 보조어간으로 흔히 ㄱ ㄴ 비 리 ㅈ 등의 받침 있는 어간에 붙어서 동사를 피동사나 사역동사로 만드는 보조 어간. 「먹히다」

14) 어간의 끝음절이 ㄹ ㅅ ㅌ ㅍ 인 동사를 사역 또는 피동으로 만드는 보조 어간. 「실리다」

의 종류에 따라 매우 제약을 가지며, 이 방식으로 수동형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부의 타동사에 그치며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수동형을 나타낸다.¹⁶⁾

(22) 매일 매일 기도했을 뿐이다. 그놈이 차에 치여서 죽었으면 하고 말이다. <키84>

먼저, 타동사에 「이」가 첨가되는 형식으로 능동사 「치다」에 「이」가 첨가되어 「치이다」가 된 것이다.

(23) 울기도 웃기도 하고, 속이거나 배반하기도 하고, 무척 착실하기도 해서, 짓밟히고 짓밟혀도 웃을 수 있는, 그렇게 생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가공의 사람들이었다. <도93>

타동사에 「히」가 첨가된 형식으로 능동사 「짓밟다」에 「히」를 첨가해서 「짓밟히다」의 수동형으로 바뀌었다.

(24) ~주위의 강제력에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의 표준도 홀로 개성적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74>

타동사 「떠밀다」에 접사 「리」가 첨가되어 수동형인 「떠밀리다」로 바뀌었다.

15) 흔히 ㄴ ㄹ ㅅ ㅈ ㅊ ㅌ 등의 받침을 가진 어간에 붙어 타동사를 피동사나 사역동사로, 자동사를 타동사로 만드는 보조 어간 「안기다/ 찢기다/ 쪼기다/ 신기다/ 넘기다/ 벗기다/ 말기다/ 남기다/ 숨기다/ 옮기다/ 웃기다」

16) 이철수(1993) 『국어형태학』 인하대학교출판부

(25) 남편이 아내에게 머리를 뜯기었다. <李文子>17)

「뜯다」에 접미사 「기」가 첨가되어 수동형인 「뜯기다」로 바뀌었다.

2.1.2 되다 形

되다形은 「하다」동사에 「하다」 대신에 「되다, 받다, 당하다」를 代置한다.18)

(26) 따라서 물이 상당히 흡수되어 강이 흘러가는 사이에 ~ <명104>

「흡수하다」의 「하다」를 「되다」로 代置하여 「흡수되다」의 수동형으로 바뀌었다.

(27) 아침 식사를 츄쇼쿠라고 발음해서 앉자리 사람에게 초쇼쿠라고 訂正 받자 얼굴을 약간 붉히면서 “아아, 초쇼쿠군요 아침 밥”이라고 다시 고쳐 말한다. <명174>

「訂正하다」의 능동형 「하다」대신에 「받다」가 代置된 「訂正받다」의 수동형으로 바뀌었다.

(28) 명자는 선생님한테 지적 당했다. <李文子>

「지적하다」의 능동형 「하다」가 「당하다」로 代置되어서 「지적 당

17) 李文子 「朝鮮語の受身と日本語の受身(その一) — 『持ち主の受身』を中心に—」
『朝鮮學報』第91輯 朝鮮學會

18) 김 차균(1980), 「국어의 피역과 수동의 의미」, 『한글』 168 한글학회

하다」의 수동형으로 바뀌었다.

2.1.3 지다 形

지다形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아/어/여」에 보조동사 「-지다」를 연결하는 형태를 말한다.

(29) 바로 얼마 전까지의 모든 것이 무슨 까닭인가, 엄청나 속도로 내 앞을 질주하여 지나가고 말았다.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나는 느릿느릿 대응하기가 고작이다. <키45>

(30) 이 병동에서는 가족이 오거나 문병객이 방문하는 것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로 엄하게 정해져 있었으므로, 오전 중에 몰래 가면 대체로 안전했다. <유91>

(29)와 (30)의 용례는 각각 「남기다」와 「정하다」의 타동사에 「지다」가 이어진 형태인 「남겨지다」와 「정해지다」로 되었다.

2.1.4 맞다 形

맞다形은 어휘 자체가 바뀌는 형태로서 「맞다」라든지 「듣다」 「먹다」 등으로 대치되는 형태를 말한다. 맞다 形의 경우 최현배는 말이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의 힘과 주관적으로 표현되는 말의 힘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고 능동과 수동의 구분에서는 후자가 기준임을 역설했다. 즉 맞다 形의 경우는 객관적인 사실로는 수동이지만, 문법적으로는 능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의미론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하나의 수동문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31) 군대에 가셨던 분은 경험이 있겠지만, 같은 내무반 안에서 다른 차들보다 특히 고참병 나으리로부터 얻어맞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요.

<ㄱ154>

「고참병 나으리가 때리다」의 능동문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수동문이 「얻어맞다」가 되는 것이다.

(32) 순희는 이웃집 사람에게 욕을 먹다.

이웃집 사람이 「욕을 하다」의 능동문에 대응해서 「욕을 먹다」라는 어휘로 대응하고 있다.

(33) 나는 이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꾸지람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당>

이것 역시 「꾸지람 하다」라는 능동문에 대응해서 「꾸지람 듣다」로 대응하는 수동문으로 볼 수 있다.

2.2 일본어의 受動形

일본어의 동사의 수동형은 미연형에 助動詞 「～レル、ラレル」가 연결되어 이루어진다.¹⁹⁾

1)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 (5단 활용 동사)

어간+ —aru —(ru) 예) 死ぬ—死なれる(sin-are-ru)

19) 寺村秀夫(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I」 「くろしお出版」

2)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 (상·하1단 동사)

어간 + ーrare ー(ru) 예) 起きるー起きられる(oki-rare-ru)

3) 불규칙동사(サ변격, カ변격 동사)

예) する(suru)ーされる(sare-ru)

来る(kuru)ー来られる(korare-ru)

단, 5단 활용 동사 중에서 「思う」「買う」와 같이 「-u」로 끝나는 경우에는 「-wa-re-ru」의 형식으로 된다.

이처럼 한국어의 수동형이 4가지 형태를 가지지만, 일본어의 수동문은 형식면에서 「-れる、られる」로만 이루어진다. 또한, 한국어의 수동은 피동접사형, 지다형, 되다형, 맞다형의 4가지의 형식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일본어의 수동형은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단순하다는 점이 한국어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3 구문으로 본 한국어의 受動文

한국어에서 전형적인 수동문은 접미사라고 불리는 「이, 히, 리, 기」가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아래의 예를 보면서 설명해 보자.²⁰⁾

1) a 영희가 꽃을 꺾었다.

b 꽃이 영희에게 꺾이었다.

2) a 우리가 모래를 밟았다.

b 모래가 우리에게 밟히었다.

3) a 개가 어린이를 물었다.

b 어린이가 개한테 물리었다.

4) a 아이들이 잡초를 뜯었다.

20) 前掲載, 197p

b 잡초가 아이들에게 뜯기었다.

1) ~ 4)의 a는 행동주가 주어의 자리에 오고 목적 대상 또는 被動主가 목적어의 자리에 오는 타동사 구성의 능동문의 자리에 오고, 행동주가 ‘에게’나 ‘한테’와 같은 조사와 함께 부사어로 나타남과 동시에, 타동사 어간에 각각의 b구문의 ‘이, 히, 리, 기’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수동문이다.

5) a 바람이 낙엽을 날린다.

b 낙엽이 바람에 날린다.

위의 5b)에서 보면, 자동사 ‘날다’에 접미사 ‘리’가 연결된 형태로 자동사의 수동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타동사어간에 연결되는 접미사가 자동사에 연결된 형태로 예외적인 형태로 고려하고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조동사가 오는 일본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5a) 처럼, 사동사라도 함께 쓰이는 접미사가 있으므로 자동사의 수동문을 사동문의 파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²¹⁾

2.4 구문으로 본 일본어의 受動文

일본어의 受動表現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²²⁾ 주격에 오는 명사가, 술어동사의 어간에 의해 나타나는 동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직접수동과 그 영향이 간접적인 간접수동으로 나눌 수 있다.

(34) a. ライオンは(が) シマウマを 襲った。

21) 자동사에서 피동사가 파생된다는 것이 국어 피동문의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도 예외적인 현상으로부터는 어떤 타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해석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모색해 보는 길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방안으로 피동사 ‘날다, 울리다’를 사동사(즉 타동사) ‘날리다, 울리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는 길이다. 임홍빈(1990) 『국문법』 199p

22) 野田尚史(1991), 「はじめての人の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1996年 第11刷発行

- b. シマウマはライオンに襲われた。
- (35) a. ハンターは(が) シマウマの足を銃で撃った。
 b. シマウマは(が) ハンターに足を銃で撃たれた。
- (36) 太郎は花子にアパートに来られた。

(34b)의 경우는 주어인 シマウマ는 동작의 주체인 라이オン이 행하는 동작(襲う)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 즉, 능동문과 수동문이 직접 対応하는 관계이다. 이와 같은 수동문을 직접 수동문이라 하며, 또 (35b)처럼 능동문과 직접 対応하지 않는 것으로, 対応관계가 있다고 해도 능동문의 「~の~を」의 「の」가 수동문의 「~が」가 되는 간접적인 관계이다. 즉, 주어인 シマウマ는 동작의 주체인 ハンター가 행하는 동작(撃つ)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간접 수동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36)와 같은 受動表現은 自動詞의 受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²³⁾

3. 양국어의 대응관계에서 나타나는 수동문의 특징

3.1 양국어 사이의 대응관계

한국어와 일본어는 구문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인 학습자들의 오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점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본어의 수동문이 한국어에서는 어떤 형태로 대응관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23) 森田(1990), 「日本語学と日本語教育」의 형태별의 분류 種類로는 第1種の 受身중에서

① A가 自V → B(ハ)Aニ 自Vレル ⑤ A가Bニ 自V → B(ハ)Aに(カラ/ニヨッテ) 自Vレル에 해당한다. 「日本語学と日本語教育」, 「凡人社」

(37) 父は浮気はしなかったが、焼き物にのめり込んで、散財したりだまされたりしょっちゅうしていた。 焼物がなかったらきっと女の人をつくっていたわ、というのが母の知恵であり、意見だった。 <と47>

(37)'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도자기에 폭 빠져서 재산을 날리거나 사기 당하기를 거듭 했다. <도52>

(37)은 「だます」가 「だまされる」의 형태로 나타났다. 한국어의 경우는 「사기 치다」가 「사기 당하다」로 나타나고 있다.

(38) 私は言った。
「友達に、いろいろなことにととも苦しんでいる子がいてね、その子が捜してきたんだけど、少し過激な講座だからついて来てって頼まれてね。」
「過激?」 <と34>

(38)' 나는 말했다.
「친구 중에 여러모로 무척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서, 그 친구가 발견했는데 말이야, 약간 과격한 강좌니까 같이 가 달라고 분탁해서」
「과격?」 <도37>

(37)과 (37)'처럼 일본어의 수동문이 한국어의 수동문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38)과 (38)'처럼 일본어의 수동문이 한국어에서는 능동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양국어의 대응관계 중에서 수동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양국어의 언어 생활 등을 고려하여 수동문이 내포

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成光秀(1976)는 「만약 변형규칙에 의한 構造變化時에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능동문과 수동문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변형규칙에 의한 구조 변화와 같이 의미 변화도 일어난다면 표면구조의 피동문은 능동문과 의미가 달라야 한다.」 라고 하고 있듯이 수동문과 능동문의 사이에는 다른 언어 구조라는 기본 생각에서 출발한다면 의미면에서 수동문을 사용하는 의도, 혹은 내포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1.1. 일본어의 수동문이 한국어의 수동문에 대응하는 경우

먼저 일본어의 수동문이 한국어의 수동문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조사해 보았다. 그 중에서 각각 한국어의 어떤 형식에 대응하는가를 수동접사형, 되다 형, 지다 형과 맞다 형의 4가지로 알아보았다.

3.1.1.1 한국어의 접미사에 대응하는 경우

한국어의 수동형에는 수동을 만드는 접미사인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수동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일본어의 수동형이 이 히 리 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1) 이에 대응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출현 빈도수가 15세기 국어에서부터 현대어에 이르기까지 「이」가 가장 높고 대표적인 형태소이기 때문에 「이」를 대표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²⁴⁾ 즉 이하의 이, 히, 리, 기에 대응하는 것이 모두 다 여기에서 파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성광수 (1982) 「國語擬似被動文」 『關東大學論文集』 p71

(39) 十年かかって貯金した末、やっと立てたこの郊外の私の家は小さな丘陵の頂
にあった。丘陵と言っても昔は松林におおわれていた面影はもう、ほとんどないので
す。今はぎっしりささやかな住宅がつまっておる。〈ユ 140〉

(39)' 십 년 걸려 저금한 끝에 간신히 지은, 이 교외의 우리 집은 작은 언
덕 꼭대기에 있었다. 언덕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송림에 덮여 있던 모
습은 이제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뽁뽁하게 작은 집들이 짝 차 있다.
〈유140〉

(39)의 용례에서는 「おおう」라는 타동사가 (39)'에서는 「덮다」에 접미
사의 「이」가 연결되어 「덮이다」의 수동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40) 今は林立した高層ビルが駅の回りを幾重にも取り囲み、切符売り場の前の辺りに、
地下道が張り巡らされて、冷たい変なおいのする商店街になっている。〈だ〉

(40)' 지금은 죽 늘어선 고층 빌딩이 역 주변을 몇 겹이나 둘러싸고 있고,
매표소 앞의 광장 주변이 지하도로 에워싸여 차갑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상점가가 되어 있다. 〈당〉

타동사인 「張り巡る」가 한국어에서도 「에워싸다」의 타동사에 대응한다.
또 수동형인 「張り巡られる」는 한국어에서 「이」 접미사가 연결되어
「에워싸이다」로 나타나고 있다.

(2) 히에 대응

(41) 私の遠い瞳が見ていたのは、山の向うにあるはずのもっと、どろどろして、もっと強く、
とてつもなく美しいはずの「人間」というものに対する夢だった。泣いたり、笑った
り、だましたり裏切ったりひどくまじめだったりして踏まれても踏まれても笑うことができ

る、そんなふうになまなましく生きているのは架空の人々だった。

(41)' 울기도 웃기도 하고, 속이거나 배반하기도 하고, 무척 착실하기도 해서, 짓밟히고 짓밟혀도 웃을 수 있는 그렇게 생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가공의 사람들이 었다. <토93>

(42) つまり思い詰めた人間は、ある意味では固定観念にとらわれていて、自由を失っているのだともいえよう。 <高72>

(42)' 즉 골똥히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있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고73>

(41)과 (42)에서는 각각 타동사 「踏む」 「とる」의 수동형이 한국어에서는 (41)'와 (42)'에서 「짓밟히다」 「잡히다」의 「히」 접미사가 연결된 형태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3) 리에 대응

(43) このふむウとうなる時、いかにも不満気な表情をする。お袋や俺たちになんかのことでやりこめられると、仏頂面でふむウと言う。 <と107>

(43)' 이 으음하고 신음할 때,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어머니나 우리에게 어떤 일로 궁지에 몰리면 무뚝뚝한 얼굴로 으음 한다.

<도97>

(43)에서는 「やりこめる」의 수동형인 「やりこめられる」에 대응해서 한국어에서는 「궁지에 몰리다」인 수동형으로 나타난다.

(44) お母さんが必死でこいでいるのもお構い無しに、彼女はぼんやりと私を見つめた。

風に吹かれてまだ細い毛が闇にざらざら揺れた。彼女はとてもおとなびた、アンニュイな顔をしていた。何かを憂えているように、何もかもを見下ろしているように。

<キ54>

(44)'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페달을 밟고 있는 것에는 관심도 없이 그 아이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바람에 휘날려서 아직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어둠 속에서 살랑살랑 흔들렸다. 그 아이는 매우 어른스러운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뭔가를 걱정하고 있는 듯이, 모든 걸 내려다 보고 있는 듯이. <키49>

(44)의 자동사 「吹く」의 수동형인 「吹かれる」가 한국어와의 대응 관계에서도 수동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에서도 자동사인 「휘날다」가 「리」 접미사가 첨가되어 수동형인 「휘날리다」로 대응하고 있다.

(4) 기에 대응

(45) 私は幸せになりたい。長い間、川底をさらい続ける苦勞よりも、手にしたひと握りの砂金に奪われる。そして、私の愛する人だちがすべて今より幸せになるといいと思う。

<キ221>

(45)'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오랜 시간, 강바닥을 헤매는 고통보다는, 손에 쥘 한 줌 사금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키194>

(46) 彼女が何かに傷付いていつことや、休みを取っていることがその全身から伝わってきた。古いレースのベッドカバーをそっとはがして、私たちははじめて一緒に寝た。きっと昔彼女はここで夫に抱かれたのだろう、と思った。 <と113>

(46)' 뭔가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과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온

몸에서 전해져 왔다.

낡은 레이스의 침대 커버를 살짝 벗겨내서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잤다.

‘틀림없이 예전에 그녀는 여기에서 남편에게 안겼겠지’ 하는 생각을 했다. <도>

(45)와 (46)는 각각 「奪う」와 「だく」의 수동형 「奪われる」와 「だかれる」가 한국어에서 「빼앗기다」와 「안기다」로 대응해서 나타난다. 즉 「빼앗다」와 「안다」에 접미사 「기」가 연결되어서 수동형을 이루고 있다.

3.1.1.2 한국어의 되다 형에 대응하는 경우

(1) 되다에 대응

한국어에서 되다 형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 1) 마춘 옷이 다 되다
- 2) 부자가 되다
- 3) 노랗게 되다
- 4) 일이 제대로 되다
- 5) 사랑하게 되다
- 6) 걱정되다
- 7) 주목되다

1)~5)까지는 모두가 자동사이지만 각각 그 기본 의미가 일본어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1)의 되다는 「できる」의 의미이며, 2)와 3)의 경우는 「~になる・~くなる」로 표현되며, 4)는 「仕事がうまくいく」의 의미로 사용된다. 또, 5)의 사랑하

게 되다의 경우는 「するようになる」의 형태로 나타난다. 6)과 7)의 예문은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명사에 붙어, 그 동작이 스스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을 더하고 있다.²⁵⁾

6)의 경우는 일본어에서 「자발」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7)의 경우가 일본어의 수동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형태들이다.

일본어의 수동형이 「되다」로 대응하는 경우는 한국어로 대응 관계를 조사해 보았을 때 「한자어+되다」로 대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어에서 「되다」에 대응하는 경우는 상황에 의해 흘러가는 なりゆきの 의미나 자발의 의미가 강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특히 그 중에서도, 처음에 서론에서 밝혔듯이 6)과 7)의 「걱정되다」「 주목되다」의 경우는 한국인 학습자의 경우에 「~になる」 혹은 「~くなる」의 오용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47) どうして私はこんなにも台所関係を愛しているのだろう、不思議だ。魂の記憶に刻まれた遠いあこがれのように愛しい。ここに立つとすべてがふり出しに戻り、何かが戻ってきた。 <キ87>

(47)' 어제서 나는 이토록 이나 부엌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상한 일이다. 혼의 기억에 각인된 먼 옛날의 동경처럼 사랑스럽다. 여기에 서면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고, 무언가가 다시 돌아온다. <키77>

(48) 私だけの部屋はお城のように暖かく安心で、満たさされていて、タオルから食器から室内ばきまでみんな私が選んだインテリア、いわば私の分身で、何も私をかき乱すものではなく、会社の何もかもがざわめく風景のように遠く、毎晩決まった時刻に来る恋人の電話を(深く考えないで、もしくは体が疲れて深く考えられなくて)待つばかり。 <と69>

25) 이희승 편저(1990),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p957

(48)' 나만의 방의 성처럼 따뜻하고 안심이 되며 충만되어 있고, 타올이나 식기에서부터 실내 슬리퍼까지 전부 내가 고른 인테리어, 말하자면 나의 분신으로, 그 어느 것도 나를 혼란시키는 것은 없고, 회사의 모든 것인 슬렁거리는 풍경처럼 멀리 느껴지며, 매일 밥 정해진 시각에 걸려오는 애인의 전화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혹은 몸이 피곤해서 깊이 생각할 수가 없어서) 기다릴 뿐. <도71>

(49) 記憶はエネルギーだから、発散されなければ世にもさみしいかたちで体内に残留する。神様は心配する。 <と71>

(49)' 기억은 에너지니까 발산되지 않으면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체내에 잔류한다. 신은 걱정한다. <도75>

(47)~(49)에서 「刻む」「満たす」「発散する」가 각각 한국어에서 「각인되다」와 「발산되다」「충만되다」의 「되다」에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어에서 이는 수동의 의미가 있다기 보다 なりゆきの 표현으로 행위자의 의식이 없이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ニュ앙스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표현들이다.

또 되다 형으로 대응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본어에서는 한어가 아닌 순수 일본어인 것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에는 능동형이 「한어+하다」이며 수동형은 「한어+되다」로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동사는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기본형	수동형	기본형	수동형	기타
刻む	刻まれる	각인하다	각인되다	
満たす	満たされる	충족하다	충족되다	
解放する	解放される	해방하다	해방되다	
刻み込む	刻み込まれる	각인하다	각인되다	
殺す	殺される	살해하다	살해되다	살해당하다
つながる	つながられる	연결하다	연결되다	
含む	含まれる	포함하다	포함되다	
取り去る	取り去られる	제거하다	제거되다	
発散する	発散される	발산하다	발산되다	
許す	許される	허용하다	허용되다	인정받다
統一する	統一される	통일하다	통일되다	
用意する	用意される	준비하다	준비되다	
限る	限られる	한정하다	한정되다	
運ぶ	運ばれる	운반하다	운반되다	
証明する	証明される	증명하다	증명되다	
行う	行われる	거행하다	거행되다	
挿入する	挿入される	삽입하다	삽입되다	
失う	失われる	상실하다	상실되다	
強要する	強要される	강요하다	강요되다	
要求する	要求される	요구하다	요구되다	

(2) 받다에 대응

한국어의 수동문 중에서 -받다 형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이 한자와 결합하여 일본어의 「한자+受ける」라든지 「한자+もらう」로 나

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한국인 학습자가 일본어 학습에 있어서 쉽게 간과할 수 있어서 틀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어 중에서 「받다」로 쓰이는 용례를 알아보려고 한다. 아래의 용례는 모두 국어대사전²⁶⁾의 용례를 참고로 했다.

- 1) 품삯을 받다
- 2) 존경을 받다
- 3) 햇빛을 받다
- 4) 중요한 전달을 받다
- 5) 곤란받다 / 귀염받다 / 버림받다 / 주목받다

1)의 경우의 「받다」는 일본어의 「もらう」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2)의 경우는 「うける」의 의미에 해당한다. 앞에서 밝혔던 「칭찬을 받다」의 「称讚をもらう」와 마찬가지로 「尊敬される」의 형태가 「尊敬をもらう」로 표현되고 있다.

3)과 4)의 용례는 「日差しをうける」와 「伝達をもらう」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5)의 경우는 접미어로서 어떠한 명사 밑에 붙어서 「입다, 당하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²⁷⁾ 즉, 일본어의 「当たる、もらう、うける」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50) 病室の中から老人の声が聞えた。老人はベッドに横になったまま、じっとこちらを見ていたのである。

「アッ。大丈夫であります」

もう大社長に声をかけられた受験生のように緊張したさくは、

26) 국어대사전, 이희승 편저, 1990 민중서림

27) 국어대사전, 이희승 편저, 1990 민중서림 p1387

「ご心配かけて申訳ありません」 <ユ60>

(50)' 병실 안에서 노인의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침대에 누운 채 물끄러미 이쪽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 아. 괜찮습니다.”

별써 대사장에게 질문을 받은 수험생처럼 긴장한 사쿠는,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유61>

(51) 「それでないと・・・」それでないと、今後、ますます山川婦人に東大でだの巴里だので威張らせることになる。それでないと今後、ますますきよ子の自尊心は傷つけられる。それを塩見婦人は言おうとしていたのではなかったか。

<ユ26>

(51)'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더 야마카와 부인으로 하여금도 대학출신이다, 파리다 등으로 으스스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그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기요코의 자존심은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시오미 부인은 말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유27>

일본어의 수동문이 한국어에서 授受 동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수동사는 상호간의 방향성이 느껴지는 어휘들이 대부분이다. 또, 「받다」의 경우도 동사 자체의 의미로 보면 授受 동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일본어의 「もらう」나 「うける」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동사들이 많다.

그리고 일본어의 수동문이 한국어의 「받다」로 대응하고 있는 경우는 일본어도 한국어도 초점이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에 놓여있다. (50)'과 (51)'처럼 행위자 보다는 질문을 받은 「수험생」과 「기요코의 자존심」에 더 큰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동사는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받다 형

기본형	수동형	기본형	수동형	기타
打ちのめする	打ちのめされる	타격을 주다	심한 타격을 받다	타격을 입다
愛する	愛される	사랑하다	사랑받다	
教育する	教育される	교육하다	교육받다	
誤解する	誤解される	오해하다	오해받다	
許す	許される	인정하다	인정받다	
紹介する	紹介される	소개하다	소개받다	
プロポーズする	プロポーズされる	프로포즈 하다	프로포즈 받다	
支える	支えられる	부축하다	부축 받다	
縁切る	縁切られる	버린 자식 취급하다	버린 자식 취급받다	버린 자식 취급당하다
進める	進められる	소개하다	소개받다	
頼む	頼まれる	부탁하다	부탁받다	
傷つける	傷つけられる	상처주다	상처를 받다	
お礼を言う	お礼を言われる	인사를 하다	인사를 받다	
声をかける	声をかけられる	질문하다	질문을 받다	
おびやかす	おびやかされる	위협하다	위협받다	

(3) 당하다에 대응

(52) 私はくりかえしたずねた。しばらくの沈黙のあと、雄一が言った。

「母親・・・ああ、父親って言うべきかあ。殺されたんだ。」

私にはわからなかった。私には、わからない。黙って息をのむ私に、雄一は本当に話したくなさそうに少しずつ、えり子さんの死を語りはじめた。 <キ57>

(52)' 나는 몇 번이나 물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고, 유이치가 말했다.

「엄마・・・아아, 아버지라고 해야 하나. 살해당했어」

나는 알 수 없었다. 아무 대꾸 없이 숨을 삼키는 나한테, 유이치는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조금씩, 에리코 씨의 죽음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キ63>

(53) そんなことがしたいだけなんだと思った。

何も傷つかずに育ってくる人間はいない。

みんなが一度くらい親から決定的に拒まれたことをどこかで覚えている。<と133>

(53)' 그런걸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고 자라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한번쯤 부모에게 결정적으로 거부당했던 걸 어디에선가 기억하고 있다 <도135>

(54) 父は浮気はしなかったが、焼き物にのめり込んで、散財したりだまされたりしょっちゅうしていた。焼物がなかったらきっと女の人をつくっていたわ、というのが母の知恵であり、意見だった。 <と123> <=37>

(54)'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도자기에 푹 빠져서 재산을 날리거나 사기 당하기를 거듭 했다. <도126> <=37>

다음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하다 형에 대응하는 경우는 일본어가 순수 일본어인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한어+하다」나 「한어+치다」의 형태가 수동형으로 대응하는 경우 「한어+당하다」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당하다 형으로 대응했을 때에는 선행 요소인 한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이 위치하며 마이너스적인 의미가 포함된다.

「받다」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하다」에 대응하는 것은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에 더 큰 초점이 있다. 특히 한국어의 「당하다」라는

단어는 그 자체에 피해 의식과 의도성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다.

그래서 「존경하다」가 「존경당하다」 등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이처럼 「당하다」에 대응하는 동사는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당하다 형

기본형	수동형	기본형	수동형	기타
翻弄する	翻弄される	농락하다	농락당하다	
だます	だまされる	사기치다	사기를 당하다	
殺す	殺される	살해하다	살해당하다	
拒む	拒まれる	거부하다	거부당했다	
裏切る	裏切られる	배반하다	배반당하다	
お金をとる	お金をとられる	징수하다	징수당하다	
制止する	制止される	제지하다	제지당하다	

3.1.1.3 한국어의 지다 형에 대응하는 경우

「되다」에 대응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어의 의도성이나 행위를 강조하기 보다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 이루어 지는 なりゆき에 가까운 수동문이 많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어떤 의도성이라든지 피해의식을 느낄 수 없고 자발의 의미가 강하게 느껴지는 수동문이다.

이는 특히 한국어의 경우 최현배(1929)²⁸⁾는 여의 움직임씨나 「하다 따위 움직임씨」나를 물론하고, 또 제움직씨와 남움직씨를 물론하고 모든 움직씨의 감목법 어찌꼴 「-아, -어, -여」에 도움 움직임씨 「지다」를 더하여 입음을 만드는, 두루 통하는 법이라고 했으며, 이것은 실제의 뜻가

28) 최현배(1929), 『우리말본』, 정음사

운데에 할 수 있음²⁹⁾과 절로됨의 두가지만을 가지고, 이해 입음의 뜻은 가지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것은 「되다」에 대응하는 경우 피해 의식 보다는 자발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5) 雲は無の世界なのではなく、けがれない命の球速のところとみる設定には、つくりごととは言えない、はかない生命の願望が込められているのだと、教えられることの多いその旅で～ <名20>

(55)' 구름은 무의 세계가 아니라 더러움이 없는 생명의 휴식처라고 보는 설정에는 지어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덧없는 생명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깨우침 많은 그런 여행이었다.<명21>

(56) 「違う、生きていくコツをつかむ才能だよ。時間というものがあって、前に進むことを才能だ。腕は磨かれ、飽きがきて、卒業する、そんなうそを信じ込める才能。人は本当は一生同じようなところをぐるぐるまわっているだけのものなのに。」 <ユ88>

(56)' 「아니, 살아가는 요령을 터득하는 재능 말이야.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재능이 지. 숨씨는 좋아졌으면서 싫증이 나서 졸업한다고 하는 그런 거짓을 믿게 만드는 재능. 사람은 사실은 평생 비슷한 곳을 빙빙 돌고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데도」 <유89>

(57) まともに受け止めることができない。ショックの嵐の向こうから、少しずつ近づいてくる暗い事実だった。そして雄一は、どしゃ降りの雨にさらされた柳のようにうちしおれていた。 <ぼ37>

(57)' 직면할 수 없었다. 충격의 돌풍 너머에서 조금씩 다가오는 암울한

29) 예) 이까짓 산이야 나도 올라가야 진다.

사실이였다. 그리고 유이치는 콕콕 쏟아지는 빗속에서 있는 버드나
 무처럼 풀이 죽어 있었다. <철40>

(58) おそらく、こんな考えがサンチョーパンザの頭の中でくり広げられたのでしょう。<ぼ>

(58)' 아마도 이런 생각이 산초 판자의 머릿속에서 펼쳐진 것이겠죠. <철>

(55)~(58)에서의 「담겨지다」 「좋아지다」 「쏟아지다」 「펼쳐지다」 의
 어휘들은 모두 어떤 주어의 의지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현상과 자
 연현상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대응 관계로 볼 때 행위를 강
 조하기보다 자연적인 현상을 말하고자하는 경우에 「되다」로 대응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5>의 동사들이 있다.

<표5> -지다 형

기본형	수동형	기본형	수동형	기타
切り抜く	切り抜かれる	드리우다	드리워지다	
見開く	見開かれる	뜨다	크게 떠지다	
与える	与えられる	주다	주어지다	
開く	開かれる	헤치다	헤쳐지다	
取り残す	取り残される	남기다	남겨지다	
縁を切る	縁を切られる	관계를 끊다	관계가 끊어지다	버린 자식 취급받다
磨く	磨かれる	숨씨가 좋다	숨씨가 좋아지다	
隠す	隠される	숨기다	숨겨지다	
清める	清められる	청결하다	청결해지다	

3.1.1.4 한국어의 맞다 형에 대응하는 경우

맞다형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일본어에서는 행위자에 의하여 그 행위의 영향을 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행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행위의 주체보다는 대상에 더 초점이 놓여있다. 또, 능동형이 수동형으로 대응되는 형태가 없을 때는 의미적으로 수동의 뜻이 있는 어휘로 대처시키고 있다.

(59) 軍隊にいかれた方は経験がおありででしょうが同じ内務班のなかで、ほかの連中より特に古兵殿から殴られるやつがいたでしょう。 <ユ154>

(59)' 군대에 가셨던 분은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같은 내무반 안에서 다른 차들보다 특히 고참병 나으리로부터 얻어맞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요.

<유155>

용례 (59)의 일본어에서는 「殴られる」의 수동형이 한국어에서는 「얻어맞다」라는 수동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는 능동형에서의 「때리다」라는 어휘에서 의미적으로 수동의 뜻이 있는 「얻어맞다」로 대응하고 있다. 나으리라는 행위자를 강조하기보다는 「맞았다」는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고 있다.

(60) 私が時々刷るおかしな発言を皆が「プッシュマン」とか「こいサンマン」とか言って笑うけど、人気は高い。恋を打ち明けられたり、けんかを売られたり、しかられたり、悩みを相談されたり、誕生日のプレゼントをもらったりする。 <名104>

(60)' 내가 가끔 이상한 발언을 하거나 하면 모두가 <부시맨>이랄지 <코사인맨>이라며 웃지만 인기는 높다. 사랑의 고백을 듣기도 하고, 싸움을 걸어오기도 하고, 약단을 맞기도 하고, 고민의 상담역을 하기도

하고, 생일 선물을 받기도 한다. <명105>

용례 (60)'에도 (59)'와 마찬가지로 「야단치다」가 의미적으로 수동의 뜻있는 「야단맞다」의 맞다형으로 대응해서 나타나고 있다.

(61) 医者に診てもらいと、脱水症状を起こしていると言われて、太いブドウ糖を注射された。<高28>

(61)' 의사에게 진찰 받았더니, 탈수증세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서 굵은 포도당 주사를 맞았다. <고29>

일본어에서는 「注射する」가 「注射される」의 수동형으로 바뀌는 것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주사 놓다」가 「주사 맞다」의 맞다형으로 대응하고 있다.

生越(1982)에 의하면 「한어+する」가 한국어의 대응관계에 있어서는 「한어+하다」와 「한어+되다」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나 위의 용례에서 보듯이 일본어의 능동형도 「한어+하다」가 아닌 「한어+놓다」로 하다 동사로 나타나지 않으며, 특히 수동문은 「하다」나 「되다」가 아닌 「한어+맞다」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능동형이 수동형을 취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의미적으로 수동형인 어휘형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의 <표5>와 같다.

<표5> -맞다 형

기본형	수동형	기본형	수동형	기타
ひっぱたく	ひっぱたかれる	후려치다	후려맞다	
しかる	しかられる	야단치다	야단맞다	꾸지람듣다
撲る	撲られる	때리다	얼어맞다	

3.1.2 일본어의 수동문이 한국어의 능동문에 대응하는 경우

일본어의 수동문이 한국어에서는 능동문으로 대응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有情의 주어인 경우, 無情의 주어인 경우와 授受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의 3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의 용례와 함께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한다.

여기서 有情의 주어와 無情의 주어로 나누어서 조사한 것은 수동문이라는 것은 본 논문에서는 행위자인지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지에 따라 초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1) 有情의 주어인 경우

(62) 彼のしつこきに比例してえり子さんも店の人も冷淡になっていったので、バカにされたと叫んで、ある夜、男は突然彼女をナイフで刺した。 <키70>

(62)' 그의 집요함에 반비례하여 에리코씨나 가게 사람들은 점점 그에 대해 냉담해져 갔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남자는 바보 취급한다고 소리를 껍껍 지르면서 갑자기 나이프로 그녀를 찔렀다. <키79>

일본어에서 수동형인 「バカにされる」가 한국어에서는 「바보 취급하다」의 능동형으로 대응해서 나타난다. 이는 일본어의 경우 「彼は彼女にバカにされた」에서 「彼가 그녀에게 바보 취급 당했다」라고 하여 동작의 영향을 받은 「彼」에 초점이 맞춰진 수동형으로 표현이 되었다. 그러나 용례

(62)'에서도 보이듯이 한국어의 경우는 「그녀는 바보 취급한다」라고 표현이 되듯이 한국어에서는 능동형으로 표현하여 동작자인 「그녀」에 초점이 맞춰져 그 동작을 중시하고 있다. 즉 한국어의 능동 표현을 일본어로 바꾸면 「彼女はバカにした。」로 표현된다.

(63) 悲しいことだけれど、両親の家系に異常に癌の発生率が多い人とか、ひどい貧血性とか、そういうを抱えている人と同じ位宿命的に避けられない血の重みを確かに感じていた。

「どうやっても私は私で、他の両親に育てられた子にはなれない。」 <도59>

(63)' 슬픈 일이지만 양친의 가계에 비정상적으로 암 발생률일 높은 사람이랄지, 심한 빈혈증이랄지, 그런 걸 떠 안고 있는 사람과 같은 정도로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피의 무게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나지, 다른 부모가 키운 아이가 될 수는 없어」 <도58>

(63)는 동작의 영향을 받는 「私」에 초점이 맞춰진 수동형이 되었으나 한국어는 (63)'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부모가 키웠다」로 대응하여, 「다른 부모」에 초점이 놓여 있는 능동형으로 대응되고 있다. 일본어의 「他の両親が育てた」로 표현된다.

그러나 만약 한국어의 해석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나지, 다른 부모에게 키워진 아이가 될 수는 없어」라고 해석이 된다면, 아이에 초점이 놓이기 된다. 즉 내용의 진술에 있어서 아이 중심으로 되어지지만, (63)'와 같이 능동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부모나 아니면 자신의 부모이나 의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일본어의 수동문이 한국어에서는 능동문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일본어에

서는 행위자보다는 행위 영향을 받는 대상이나 행위 자체에 초점이 있다.

주어가 화자가 되면 한국어와 일본어 양국어 모두가 화자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수동문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앞 부분에 원인을 제시한 후, 보문이 행위자 중심이므로 전개되며 주어의 불일치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일본어에는 보문이 있을 때 주절의 주어와 보문의 주어를 일치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보문에서는 초점이 바뀌는 수동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64) 秋の終り、えり子さんが死んだ。

気の狂った男につけまわされて、殺されたのだ。 <키70>

(64)' 가을의 끝, 에리코 씨가 죽었다.

미친 남자가 쫓아 다니다가, 급기야 살해한 것이다. <키61>

(64)에서 「えり子さん」에 초점이 맞춰져서 「殺された」라는 행위의 영향을 받은 수동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비해 (64)'에서는 행위자인 미친 남자에 초점이 맞춰져서 행위에 중점을 둔 능동형으로 표현되었다.

(65) 「あんた、ついてるんだぜえ。戸籍の貸し賃が五十万、タダ貰みてえなもんじゃないか。このさき所帯もつにしたって、女房に死なれましたってのはバツイチよりかよっほど体裁だっていいし。」 <ぼ23>

(65)' “자네, 재수가 좋은 거야. 호적 빌려주는 값 오십만 그냥 얹아서 번거어나? 자네도 앞으로 결혼해서 가족 식솔 거느리자면 이전 마누라가 세상 떴다고 하는 게 이혼했다는 것 보다 훨씬 모양도 좋구.”

<철23>

용례 (65)는 자동사의 수동으로 불리는 문장이다. 이것 역시 「私は女房に死なれました。」의 수동문으로 표현됨으로서 초점이 「私」에 놓여 있어 동작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65)'처럼 「마누라」에 초점이 맞춰진 능동형으로 표현되고 있다.

(66) 「ほお、それはなかなか、いいご意見です」

「しかし、そういうことを申しますと女房から叱られる始末で、こうして先生にその対策を伺いにまいったのです」 <그94>

(66)' “흠, 그거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아내가 야단하는 형편이라, 이렇게 선생님께 그 대책을 여쭙어 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유95>

(66)은 생략된 주어인 「私」에 초점이 있으므로 「女房」가 행한 동작의 영향을 「私」의 입장에서 표현된 수동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66)'에서 보면 주어인 「아내」에 초점이 맞춰져 아내가 「야단한다」는 행위에 중점을 둔 능동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2) 無情의 주어인 경우

(67) 私は、五歳になって、ようやく、歩き始め、学齡期にあたって、私の進路について、父母の間で、だいぶ議論が交された。 <名84>

(67)' 나는 다섯 살이 되어서 간신히 걷기 시작하여, 취학 연령기를 맞이하자 나의 진로에 관해 부모님 사이에 상당한 논쟁이 오갔었다.

<명85>

(67)에서 무정의 주어이기 하지만 일본어의 경우는 「議論」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수동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67)'의 용례에서는 논쟁이 초점이 아니라 그 논쟁이 「오갔었다」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진 능동형으로 대응하고 있다. 즉 단순히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자 하는 것이다.

(68) 音のない世界にレールの軋みとも聞きまがう耳鳴りがやってきて、乙松は真白な坊主頭を抱えた。ふと、出札口のガラスが叩かれて乙松は頭をあげた。

<ぼ32>

(68)' 소리 하나 없는 세계에 레일 핑음 같은 이명이 찾아와 오토마츠는 짧게 자른 허연 머리를 감싸안았다. 별안간 매표구 유리 두드리는 소리에 오토마츠는 얼굴을 들었다. <철33>

(68)에서 무정의 주어인 「ガラス」에 초점이 놓여있다. 그러나 (68)'에서는 「유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유리를 두드린다는 행위에 초점이 있는 능동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무정의 주어인 경우에 일본어에서는 무정의 주어에 초점이 있는 수동문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한국어의 경우에는 무정의 주어보다는 어떤 행위, 혹은 있는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기 위한 사실에 더 중점을 두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授受 동사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경우

(69) はい、と手のひらに渡されたとき、暖かい涙のスクールが心の天空をよぎっていくのがわかった。 <と18>

(69)' 자, 하고 손바닥에 건네 주었을 때 스코올과 같은 따뜻한 눈물이 마음속의 하늘을 스쳐 가는 것을 알았다. <도20>

일본어의 수동형인 「渡される」가 한국어의 「건네 주다」인 능동형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능동형 중에서도 이는 수수 동사로 대응하고 있다.

다음에 나오는 용례들도 수수 동사로 표현되는 예로 볼 수 있다.

(70) とかげは学校に行き、資格を取った。

そして在学中に才能を認められた気功師に弟子入りして半年間中国に留学した後、帰国して小さな治療院を開いた。〈と87〉

(70)' 도마뱀은 학교에 다녀서 자격증을 땀다.

그리고 재학 중에 그녀의 재능을 인정해 준 기공사의 제자로 들어가서 반 년 동안 중국에 유학한 후 귀국해서 자그마한 치료원을 차렸다.

<도93>

위의 용례에서는 일본어의 수동형인 「認められる」가 한국어는 능동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정해 주다」라는 일본어의 수수 동사 형태로 표현된다. 즉, そして在学中に才能を認めてくれた気功師に弟子入りして ~ 로 대응한다.

여기서도 有情의 주어와 無情의 주어에서 나타난 것처럼 (70)에서는 「とかげ」에 초점이 맞춰져서 행위의 영향을 받았다는 수동형으로 표현이 되어있다. 그러나 (70)'에서는 「기공사」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공사가 인정을 했다는 능동형으로 표현된다.

(71) ああ、私もこんなものだ。と私は実感した。反省ではなくて。

人に運ばれ、守られ、世話され、あまやかされ、この二本のなかで平和にひたりながら、いっばしの何かを生きていてそのうえ自分がどこか優れていて、人よりいろんなことをしているような気になっている。〈キ77〉

(71)' 아! 나도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나는 실감했다. 반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데려와서 지켜 주고 돌봐 주고 응석을 받아 줘서 이 일본 안에서 평화에 젖어 있으면서, 나는 자신이 남 못지 않게 살아가고 있고, 게다가 어딘가 뛰어나서 남보다 많은 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키80>

일본어에서는 수동형으로 나타나지만 한국어에서는 수수 동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守ってくれ」「世話してくれ」로 표현된다. 이는 (71)에서 주어인 「私」에 초점이 있으므로 행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중심이된 수동형으로 표현되고 용례 (71)'의 한국어에서는 행위자인 「사람들」에 초점이 있는 능동형으로 표현된다.

또 이처럼 한국어에서 授受 동사로 표현되는 동사들의 특징은 방향성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어의 경우는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에 초점이 맞춰진 수동형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어의 경우는 행위자에 초점이 맞춰진 능동형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양국어의 수동문의 내포 의미

앞에서도 밝혔듯이 일본어의 수동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 두 수동문은 構文上은 물론이거니와 意味上으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어의 「간접수동문」에는 「직접수동문」과 달리 「迷惑」 내지 「被害」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黒田(1979)에 의하면 일본어의 수동문은 원칙적으로 불이익의 뜻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井上(1976)도 또한 '수동태의 주어는 원래 동작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많건 적건 간에 주어

가 영향을 받는다는가 作用을 받는다는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 주어를 갖는 수동문에서는 그 意味가 확실하고,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는 소위 「利害의 受動」이라고 느낀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어의 수동문에는 「迷惑」 「被害」 「不利益」 「利害」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수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어의 수동문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어의 수동문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한국어의 수동문에서는 그 의미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3.2.1 일본어에서의 수동문의 내포 의미

3.2.1.1 피해 의식

(72) 私は、ばらまかれていたゴミくずを、そばにあったゴミ箱に入れた。机の上には
コーヒー牛乳こぼれ、ほかのごみと混ざって汚れていた。教室の後ろにある雑巾
をとりに行こうと、二、三步踏み出したとき、近くにいた生徒に足をひっかけられた。
私はその場に転じた。 <だ28>

(73) クラブは超満員で、なかなかストリッパーが見えない。そこで将官は部屋の後ろ
の方のテーブルにのぼって、何とかもつとよく見ようしたんだ。ところが、クランツ曹長
は天井の扇風機をふつうよりも、三十センチメートルほど低めにつけていたらしい。そ
して、テーブル上に将官が立つと、扇風機がその頭を直撃したのだ。つまり、イン
ディアンに襲われたみたいに、丸刈りにされてしまったってわけだ。 <フォ221>

(72)에서는 누군가가 어지러운 쓰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며,

(73)에서는 인디언에 습격을 당해서 깎파 머리가 되었다는 피해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74) 昭和五十五年一月八日、その日は始業式のため、学校は午前中で終わった。
帰宅しようと下駄箱から靴をだそうとしたとき、同級生の女生徒に、
「あんな、あんたにちょっと話があるねん」と呼び止められた。
私は、わけがわからないまま、その女生徒について教室に入ると、そこには何人かの生徒がおり、その中に三人の親友もいた。〈だ〉

만약 「呼ぶ」로만 쓰였다면 상호간의 방향성의 의미 속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복합 동사의 후항에 「止める」가 이어지면서 피해 의식이 내포되게 되었다. 즉, 「同級生の女生徒」에 의해 서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세워졌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75) なんと、スネークじゃないか。二十年前、オレンジボウルでネブラスカの野郎どもとあたって、第四ダウンで時計をとめようとしてラインの外側にボールを投げた、あのクォーターバックのスネークだ。もちろん、おかげでぼくらは試合に負けて、おかげでぼくはベトナムにおくられることになったんだ。〈フオ6〉

주어인 「私」가 실재로는 베트남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보내졌다는 피해 의식의 의미가 들어 있다.

(76) はてな、なんでも様子がおかしいと、のそのそはいだしてみると、非常に痛い。
吾輩はわらの上から急に笹原の中へ捨てられたのである。〈中172〉

주어의 피해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수동문이다. 주어인 「吾輩」가 조릿대 밭 속에 버려져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3.2.1.2 연민의 정

(77) 「あんた、ついてるんだぜえ。戸籍の菓子や貸し賃が五十年万、タダ貰いみてえなもんじゃないか。このさき所帯もつにしたって、女房に死なれましたってのはバツイチとりかっよほど体裁だっていいし。予定がなけりゃすぐに再婚させてやるぜ。また五十万年でどうだ」 <ぼ56>

(77)에서 「女房に死なれた」라는 것은 죽음을 맛 보았다 라는 의미가 내포 되어있다. 그래서 「あんた」로 불리는 사람이 슬펐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2.1.3 상호간의 방향성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행위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경우로, 즉 상호간에 방향성을 느낄 수 있는 수동문이다.

(78) 「べつにないねん。お姉さんは、いつ頃から美容師になろうと思っていたん」
「中学生のときかな」
「なんで美容師になろうと思ったん」
「人をきれいにするの好きやったし、それに手に職をつけておくほうがいいと思ったから」
私は、生き生きと話すお姉さんに惹かれた。 <だ98>

(79) <ここまで来て、ほんまによかった> と胸をなでおろした。

しばらくすると、診察が終わったということで、診察室まで私が呼ばれた。母は別の部屋にいつ父に付き添っていた。 <だ177>

(80) 先生にいつもしかられながらまた一番愛されているような成績の悪い犬屋の子は、学校ではしょんぼりしているのに、道で会うときは大きな犬をつれて賢く見えました。

<名26>

용례 (78)에서 「惹く」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필요하다. (79)의 용례도 「呼ぶ」의 행위를 하는 사람과 그 행위의 영향을 받는 즉, 「呼ばれる」의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80)의 동사 「愛する」 역시 주체 행위의 영향을 받는 즉, 「愛される」의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행위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존재하여 상호간에 방향성이 느껴진다.

3.2.2.4 생략된 주어

(81) いま、福祉論が叫ばれ、障害者に対する、社会の目もうっすらとあいてきたが、今から半世紀前を想像してみてください。 <ユ34>

(82) 戦後、国の造林計画により杉の植林が盛に行われました。その後、外国の安価な原木が輸入され、植林された多くの杉がそのままになっているようです。

<朝 2002.3.11>

(81)에서는 정확한 주어를 알 수 없는 문장으로서, 문장에서의 주어는 무생물이지만 그 내면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는 「사람」으로 생각된다.

용례 (82)에서도 문장 속의 주어는 「原木」이 주어이지만 숨겨진 주어

(83) 人類の幸福とは何かという問題提起は、感傷の問題ではなく、まさに世界観の問題となってきた。

価値の体系が崩壊してしまったことが、現代の特質であり、また混乱の由来であると言われている。 <高106>

(83)에서도 숨겨진 주어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장은 완곡한 단정의 표현으로 객관성이나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성을 요구하는 공적인 문장의 신문 기사나 사설문 등에서 많이 쓰이는 형식으로 보여진다.³⁰⁾

3.2.2 한국어와의 대응 관계에서 보는 내포 의미

지금까지 알아본 일본어의 수동문의 의미가 한국어에서는 어떠한 대응 관계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3.2.2.1 피해 의식

(84) 一年のうちで、男女の児童たちがいっしょになるのは、この一月十四日しかなかった。書き初めは、それを書いた子供たちが、ほかの者に自分の筆跡を見られるのをいやがって、たいてい丸く丸められたまま火の中に投げられた。 <中64>

(84)' 1년 중에서 남녀 아동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은 이 1월 14일밖에 없었다. 신춘 휘호는 그것을 쓴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필적을 보여주기를 싫어하여 대개 둥글게 만 채로 불 속에 던져졌다. <中65>

(84)의 일본어의 수동문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필적을 보는 것에 대한 피해 의식을 충분히 느껴지지만, 한국어의 대응 관계인 (84)'의 용례에

30) 森田良行(1981), 「講座日本語教育」第9分冊、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

서는 뒤에 따라오는 「싫어하여」라는 표현이 없이 「자신의 필적을 보여 주기」라는 이 문장만으로 어떤 피해 의식을 느낄 수 없다. 즉 여기서는 授受동사인 「주다」가 사용된 능동문으로 대응하고 있다.

(85) 「うん、芳雄にそう言うたことあるけど。芳雄は私のこと思ってやめときと言うてくれてん」

「なに言うての。うち、芳雄から聞いてねんで。あのとき芳雄がやめときって言うたんは、あんたみたいな頭のおかしいやつにシャブなんか打ったら、殺されると思ったからやで。誰があんたのことなんか心配するか」

私は、耳を疑った。〈だ112〉

(85)' “응, 요시오가 관두라고 해서 못 맞았어. 내가 걱정되었는지 아무튼 정맥주사는 맞지 말라고 하더라.”

“ 뭐, 너를 걱정해서? 애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릴 하고 있어? 내가 요시오한테 직접 들은 말이 있어. 그때 요시오가 너를 말린 건 너처럼 머리가 살짝 간 애한테 그런 걸 놔 줬다가 괜히 죽인다고 덤빌까 봐서, 정말 정신이 확 가서 칼 들고 날뿔까 봐, 그래서 안 놔 준거 라더라. 누가 더 같은 애 따위를 걱정해 준대?”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당111〉

(86) それをカバーしてくれていました。母に叱られてしょんぼりしていると、父が散歩に連れ出して、近くの隅田川端などを歩み、川の流れや空の広さ、目のはいるものを楽しみながら、～ 〈名94〉

(86)' 아버지가 그것을 커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야단 맞아서 풀이 죽어 있으면 아버지가 산책에 데리고 나가 근처의 스미다 강가 같은 곳을 걸으며 강의 흐름이며 하늘의 드넓음, 눈에 들어오는 모

든 것을 즐기며~ <名95>

(85)에서는 주어에 초점이 있어서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에 피해 의식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어의 대응 관계인 (85)'에서는 능동문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기서는 어떤 피해 의식보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86)에서 주어에게 피해 의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86)'에서도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피해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어에서 피해 의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어에서 그 대응 관계를 알아 봤을 때 모두 피해 의식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2.2.2 연민의 정

(87) 「ほれ、正月やるべ。酒は札幌の地酒だって、秀男のみやげ」

「すみませんねえ、重箱まで。こっちはおっかあに死なれてから、正月って言ったって何するわけでもない」

「静技さん、何年になるべ」 <ぼ18>

(87)' “이봐, 그래도 명색이 정월이 아닌가. 술은 삿포로 토종술이어야 된
다나, 히데오가 싸 넣더구만.”

“고마우이, 안줏감까지 얌전히 챙겼구먼. 마누라 죽고는 정월도 그저
오면 오나부다 가면 가나부다 했는데.”

용례 (87)에서는 마누라가 죽음으로 해서 영향을 받은 「静技さん」에 대한 연민의 정이 나타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그다지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없는 단순한 일반적인 사실로 표현된 능동문으로 사용되었다.

3.2.2.3 상호간의 방향성

(88) 先生にいつも叱られながらまた一番愛されているような成績の悪い犬屋の子は、学校ではしょんぼりしているのに、道で会うときは大きな犬をつれて賢く見えました。

<名68>

(88)' 선생님께 늘 꾸중을 들으면서도 또한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성적이 나쁜 개장사집 아이는 학교에서는 풀이 죽어 있었지만 길에서 만날 때는 커다란 개를 데리고 다녀 똑똑해 보였다. <명69>

(89) 夫がいつものように、一瞬間の予定で、関西に発った翌日、光子はしばらくぶりであ松さんの奥さんと顔を合わせ、ベルの様子を言うと、一度医者に、見せた方がいいと薦められた。<動28>

(89)' 남편이 여느 때처럼 일주일간의 예정으로 간사이 지방으로 떠난 다음 날 미쓰코가 오랜만에 히사마쓰씨의 부인과 만나서 벨의 상태를 말하자, 의사에게 진찰을 한번 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動29>

(90) 「ごみくずが、よう似合うわ」

「ほんまや」

楽しそうに笑いながらしゃべっている。

<もうすぐ授業が始まる。先生が来るまでに片付けないと・・・>

先生に見つかったら絶対に理由を聞かれる。なんでもない、ととぼける自信はない。<だ27>

(90)' “근데, 재 쓰레기통 뒤지는 게 너무 잘 어울리더라.”

“진짜, 원래 거지였나 봐.”

모두들 한마디씩 떠들어대고 있었다.

“이제 곧 수업이 시작돼.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치우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보셨다가는 분명 이유를 물을 것이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잡아 댈 자신이 없었다. <당52>

(88)~(90)의 용례에서 나타난 「愛する、薦める、聞く」 등의 동사는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행위를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즉 상호간의 방향성을 느낄 수 있는 동사다. 그러나 (88)'~(90)'의 대응 관계에서 보여지는 동사들은 授受동사로 나타나거나 능동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3.2.2.4 생략된 주어

(91) それからまた平地へ下ることによって、自然から文化への展開を自分の足と体で確かめようとする。それにまた、登山というものには、広い意味での労働の典型が純粹に保たれている。 <高86>

(91)'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평지로 내려옴으로써 자연에서 문화로의 전개를 자신의 발과 몸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게다가 또 등산이라는 것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노동의 전형이 순수하게 보전되어 있다.

<고87>

(92) 「みっちゃん。これまで自分のためだけに生きてきたんとちがう。もうじゅうぶんやろう……」

「そうやけど……」

「テレビで放映されることで、今にでも自殺しようと思っている子どもが思いとどまってくれたり、不幸にして道を踏み外してしまっている子どもたちが、自分もやる気になったらできるんやと思って頑張ってくれたら、それでええのんとちがう……」

<だ243>

(92)' "미쓰오, 넌 이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지난날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것 같아.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는 충분히 할 만큼 했잖니."
"그렇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 얘기를 보고, 지금 어디선가 자살하려는 애들이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을 돌려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니. 그 아이들이 너를 보고 용기를 내어 노력한다면 그것으로 좋지 않겠니……."

<당235>

(91)와 (92)는 수동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피해 의식이나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없다. 위의 용례들은 정확한 주어를 알 수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생략된 주어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91)'와 (92)'의 대응 관계에서 나타나는 한국어의 경우도 일본어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야기 하고자 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일본어의 수동문이 한국어의 수동문에서 어떠한 대응 관계를 이루어 나타나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수동문에 대한 정의 및 구문론적인 특성을 알아본 후 일본어의 수동문이 각각 한국어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먼저, 일본어의 수동문에 대한 정의는 형태적인 측면, 구문론적인 측면과 의미적인 측면에서 각각 모든 조건이 절충되었을 때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또, 일본어의 수동문 형식은 동사에 조동사 「れる、られる」를 붙여 아주 규칙적이고 명료하게 나타내는데 비해 한국어의 경우는 첫째, 「이, 히, 리, 기」를 첨가해서 만드는 접미사형과 둘째, 「하다」동사의 「하다」대신에, 「되다, 받다, 당하다」대치시키는 형태로 되다 형이 있다. 그리고 셋째, 일반적인 형태로 「-아/어/여」에 보조 동사의 「지다」를 연결하는 형태인 지다 형이 있다.

이때 한국어에 있어서 되다형의 「되다」와 지다 형의 「지다」가 연결되었을 때는 일본어와는 달리 なりゆきの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나 자연 현상 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본어에서는 자발의 의미에 가깝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또 당하다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대응할 때 「한어+하다」가 「한어+당하다」로 나타내는데 이때 선행 요소인 한어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의 한어가 오는 특징이 보여진다.

넷째, 어떤 상황이나 어휘 자체가 바뀌는 형태로서 「맞다」라든지

「듣다」 「먹다」 등으로 대치되는 맞다형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일본어의 수동문이 능동문으로 나타나는 대응 관계를 1)有情의 주어와 2)無情의 주어 3)授受 동사로 나타나는 경우일 때로 분류하여 각각의 현상들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有情의 주어일 때는 일본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영향을 받는 주어에 초점이 맞춰진 수동문으로 그리고 한국어의 경우는 행위자에 초점이 맞춰진 능동문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어의 수동문이 한국어에서는 능동문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일본어에서는 행위자 보다는 행위 영향을 받는 대상이나 행위 자체에 초점이 있다.

주어가 화자가 되면 한국어와 일본어 양국어 모두가 화자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수동문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앞 부분에 원인을 제시하고 보문은 행위자 중심이므로 전개되며 주어의 불일치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일본어에는 보문이 있을 때 주절의 주어와 보문의 주어를 일치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보문에서는 주어가 바뀌는 수동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無情의 주어일 때는 일본어의 경우는 행위 자체를 강조하고자 하는 수동문으로 한국어의 경우는 능동문으로 표현하여 일반적인 상황이나 그 현상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일본어의 수동문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피해 의식, 연민의 정, 상호간의 방향성, 생략된 주어 등의 4가지로 나누어서 그 의미를 알아보고, 한국어에서는 어떤 대응 관계를 보이며 각각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피해의식으로 파악되는 경우 한국어로는 능동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행위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과 동작의 영향을 받는 주어에 초점이 맞춰지는가에서 오는 의미적인 차이로 보여진다.

그리고 일본어에서 수동문을 사용했을 때 연민의 정의 느껴지는 것이 한

국어에서는 일반적이며 단순한 서술 형식인 능동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일본어보다 능동형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과 일본어의 경우는 능동형이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형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이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본어라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 수동문에 있어서 초점 문제는 언어 생활의 습관적인 문제로 생활 방식 및 사고 방식과 많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문제는 학습자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실제로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떤 오용이 발생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과제로 알아보고자 한다.

参考 文献

- 鈴木重幸(1972), 『일본어문법·形態論』, むぎ書房
- 井上和子(1976), 『変形文法と日本語』, 大修館書店
- 生越直樹(1982), 「日本語漢語動詞における能動と受動—朝鮮語hataの動詞との対照」
『日本語教育』48号
- 寺村秀夫(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I』, くろしお出版
- 益岡隆志(1982), 「日本語受動文の意味分析」, 『言語研究』
- 久野 暲(1983), 『新日本語文法研究』, 大修館書店
- 金勝漢(1985), 「日本語の受動文に関する一考察—韓国語の受動文との対照を中心に」
『済州大学校論文集』第20輯
- 晋榮和(1985), 「韓日語의 대조연구-한자계 동사의 수동표현(1)」, 『일어일문학연구』
제6집, 한국일어일문학회
- 森山卓郎(1988), 『日本語動詞述語文の研究』, 明治書院
- 益岡隆志(1989),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 森田良行(1990), 『日本語学と日本語教育』, 凡人社
- 寺村秀夫(1990), 『外国人学習者の日本語誤用例集』, 大阪大学文学部
- 仁田義雄(1991), 『日本語のヴォイスと他動性』, くろしお出版
- 野田尚史(1991), 『はじめての人の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 森田良行(1994), 『動詞の意味論的文法研究』, 明治書院
- 塚本秀樹・鄭相哲(1994), 「韓国語における漢語動詞の受身文について」, 『朝鮮学報』,
第53輯 朝鮮学報
- 須賀一子, 早津恵美子(1995), 動詞の自他, ひつじ書房
- 朴舜愛(1995), 「日本語の表現の特徴—受身表現を中心に」, 『漢陽日本学(第3輯)』
- 森田良行(1995), 『日本語の視点』, 創拓社
- 市川保子(1997), 『日本語誤用例文小辞典』, 凡人社

- 丁意祥(1997), 「間接受身に関する一考察」 『日本語教育』 93号, 日本語教育学会
- 丁意祥(1999), 「他動詞による間接受身について」 『日本学報』 43輯, 韓国日本学会
- 李成圭, 神谷健児(1999), 「日本語の間接受動の意味的特徴」, 인하대학교 출판부
- 權寄洙(2000), 「韓・日兩國國語の漢語動詞の受動態の対応關係について
—日本語の漢語訳を中心に」 『日本学報』 44号, 韓国日本学会
- 최현배(1929),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양동휘(1976), 「국어의 피·사동」, 『한글』 166, 한글학회
- 成光秀(1976), 「國語擬似被動文」 『關東大學論文集』
- 김차균(1980), 「국어의 피역과 수동의 의미」, 『한글』 168, 한글학회
- 고영근, 남기심(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朴良圭(1990), 「被動法」,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이희승 편저(1990),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임홍빈(1991),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철수(1993), 『국어형태학』, 인하대학교 출판부
- 양정석(1995), 『국어 동사의 의미분석과 연결 어근』
- 김원호(1998), 「수동태: 형태와 기능」 『한국어학』 제8집, 한국어학회
- 송병학(1999), 「한국어의 수동태」, 『언어』, 한국언어학회

用例出典

- <フォ> ウィンストン・グルーム(1996) 小川敏子訳 『フォレストガンブ2』 講談社
- <ぼ> 浅田次郎(1997) 『ぼっぼや』 集英社
- <철> 양운옥 옮김(200) 『철도원』 문학동네
- <キ> 吉本バナナ(1996) 『キッチン』 福武文庫
- <키> 김난주 옮김(1997) 『키친』 영웅출판사
- <と> 吉本バナナ(1996) 『とかげ』 新潮文庫
- <도> 김난주 옮김(1997) 『도마뱀』 민음사
- <動>/<동> 大岡昇平(1998) 한일대역문고 『動物』 다락원
- <ユ>/<유> 遠藤周作(1999) 한일대역문고 『ユーモア傑作選』 다락원
- <名>/<명> 立原正秋(2000) 한일대역문고 『日本の名随筆』 다락원
- <高>/<고> 井上靖 外 作(2000) 한일대역문고 『高校教科書選』 다락원
- <朝> 朝日新聞、2000、3、11
- <だ> 大平光代(2001) 『だから、あなたも生きぬいて』 講談社
- <당> 양운옥 옮김(2002)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북하우스

